

□ 일본 유통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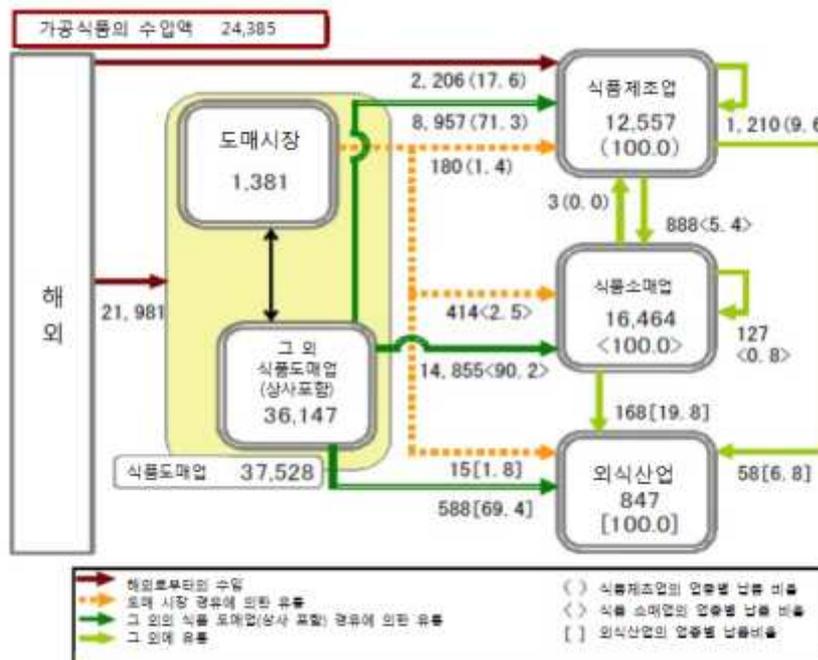
○ 가공식품 유통동향

-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가공 식품의 수입액수는 2조 4,385억 엔으로, 이 중 식품 도매업의 수입 가공식품 구입이 2조 1,981억엔임

- 업종별로 수입 가공 식품의 구입액을 보면, 식품 제조업은 1조 2,557억엔, 식품 소매업은 1조 6,464억엔, 외식산업은 847억엔으로, 그 외 식품 도매업(상사 포함)으로부터의 구입이 각각 71.3%, 90.2%, 69.4%으로 가장 높음

<수입 가공식품의 유통 구조 및 주요 유통 경로별 구입액>

단위: 억 엔, 괄호 안은 %



○ 전통주 유통동향

○ 수입자는 중간 유통상을 통해 최종 소비처 (마트, 대형유통매장, 식당 등에공급

- 판매가(1 litre PET병): 600~650엔(마트, 대형유통매장) / 1,200~1,500엔(식당가)

- PET병 300ml대: 400~500엔, 700ml대: 500~550엔

○ 주요 유통상: 코쿠부, 일본주류판매, 이토츠키식품, 로쇼큐 Liquor 등

○ 유통구조: 주류 전문벤더를 통해 공급되는 비중이 높으며, 동일한 유통상이라도 마트보다 식당가로 들어가는 공급가가 더욱 비싼 편임

- 예컨대 오사카의 한 유통업자는 1리터 PET병 막걸리를 마트에 380엔에 공급, 반면 식당가에는 420엔에 공급

- 수입자 → 중간유통상(1~2차) → 마트, 한국식품양판점, 대형유통매장 등

- 수입자 → 중간유통상(1~3차) → 식당가(한식당, 이자카야 등 일식당)

○ 유통마진율(추정치)

- 수입자(15%), 중간유통상(15~25%), 한인마트(25~50%), 마트, 대형유통매장(30~50%)

- 식당가(50~100%): 식당의 경우 유통단계가 더욱 복잡해 판매가 및 마진율이 가장 높음

○ 소주 유통동향

-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소주의 경우, 크게 두 가지로 구분
 - 국내 각 소주 메이커가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인 취향에 맞춘 소주를 정식으로 수입하여 일본 내 각 슈퍼나 외식업체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
 - 국내용 소주를 도매상(인천, 부산 등에 소재)을 통해 구입하여 시노모세키, 오사카, 후쿠오카항을 이용한 정기 페리호를 통해 수입하여 한국 야끼니쿠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는(이른바 핸디캐리 상품) 경우
- 첫 번째 경우의 상품은 외식업체 및 일반 슈퍼를 통한 판매 비율이 약 7: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
- 유통경로: 제조업체 → 일본내현지법인 → 주류도매상, 주판점 → 슈퍼 및 외식업체 → 소비자
- 두 번째 경우의 상품은 거의 일본의 일반슈퍼에서는 팔리지 않고 있고 한국의 전문 핸디 캐리어업자들에 의해 수입되어 한국의 야끼니쿠 식당에서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
- 유통경로:

↗ 한국시장 → 한국식당

보따리상 → 일본 내 핸디캐리어업체 → 도매업체 → 한국식당

↳ 한국식당

○ 약주 유통동향

- 산사춘, 복분자주의 경우 주로 한국계 상사들이 수입하여 주류도매업체를 통해 한국식당을 중심으로 판매됨
- 정식으로 이들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최근 이들 종류의 주류의 매출이 증가하자 핸디캐리를 통한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이들과의 경쟁이 다소 심화되고 있음
- 산사춘의 경로는 한국식품취급도매업체(90%정도)가 1차 유통하여 일본주류상과 한국식품취급 중도매업체를 통해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소매점 등으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백화점 등에서 개최되는 한국식품 이벤트에서 도소 이루어지고 있음